metro
메트로 2013년 9월 3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총장·이사장까지 "우리 학교 학생 좀" 올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흑석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대 2013 취업박람회'에서 박용성(오른쪽) 이사장, 이용구 가운데 총장이 LG그룹 부스를 방문해 채용담당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튀는 채용 '맞춤 스펙' 스트레스

기업들 '오디션식 면접' 경쟁에 스피치·마술까지 익혀야… "탤런트 뽑나"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권모(25)씨의 다이어리는 타 대학 취업박람회 일정으로 빼곡하다. 권씨는 "9월 첫째 주에 대학 리쿠르팅이 몰려서 열린다"면서 "주로 서울권 대학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망 서울로 원정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력서와 정장 차림을 빠뜨리지 않는다. 취업을 위해 배운 마술도 틈틈이 연습한다. 3~5분간 열리는 현장 면접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5분 자기 PR, 게릴라 면접, 드라이빙 상담…

슈퍼스타K가 아니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처럼 진행되는 요즘 기업 공채 풍속도다.

가장 대중화된 것은 자기 PR 면접이다. 오디션에서 지원자가 노래를 부르듯이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는 인생사와 애사심을 담아 끼와 열정을 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 앞에서 자기소개를 가장 잘한 구직자는 서류전형을 면제받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관문이 서류전형인 점을 볼 때 파격적인 혜택이다.

"내 일자리도 있을까" 2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13 한양 잡 디스커버리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채용정보를 찍고 있다 /뉴시스

가야자동차는 3~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커리어 투어'를 연다. 가야지는 현장 면접과 3분 스피치를 열어 우수 발표자에게 다음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직 선배와 자동차를 타면서 면접 요령을 전수받는 '드라이빙 상담'이란 이색 행사도 신설했다.

두산그룹은 6~7일 열리는 잡페어에서 5분 PR을 운영한다. 사전 등록자가 '내가 미래다'를 주제로 5분 동안 자신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면 서류가 자동 합격이다. SK는 6일부터 개최하는 채용설명회 'SK 탤런트 페스티벌'에서 비슷한 형식의 역량 프레젠테이션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기업 채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염증을 느끼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

학점, 영어 성적 같은 일반적인 자격 조건뿐 아니라 채용 현장에서 심사위원에게 돋보이기 위한 각종 특기와 재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구직자는 "모 대기업이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해 '길거리 캐스팅'을 벌였는데 이를 위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 잘하기, 휴지 줍기 등의 웃지 못할 운동이 벌어졌다"면서 "취업용 '스펙을 위한 스펙'으로 에베레스트 등반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털어놓았다.

기업인 출신 국민대 이의용 교수는 "기업 채용 전형이 구태의연함을 벗어나는 모습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기업들이 일자리 자체를 늘리지는 못한 채 다양한 재능을 요구하는 전형을 넓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실력은 구직자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많다"면서 "독특한 채용 전형이 기업 홍보와 이미지 관리에는 좋겠지만 을 입장인 구직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복잡해진 수시 모집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듯 구직자를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취업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불황땐 충성스런 인재 선호

"도대체 합격 기준이 뭔지 몰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색 공채 프로그램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스펙 시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열정이나 끼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합격을 좌우하게 되면서 100만원이 훌쩍 넘는 취업 컨설팅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릴 정도다.

취업 전문가들은 달라진 채용 트렌드에 따른 맞춤 전략을 대응해야 이색 채용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애사심 어필할 답변 준비

커리어의 황은아 컨설턴트는 "요즘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가'다"며 "불황일수록 기업들이 전문 지식과 기획력이 뛰어난 인재보다는 충성심이 강한 직원을 선호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가치관·장점·신념 등으로 애사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턴 등 실무경험 먹힌다

살아있는 스펙을 갖추라는 충고도 이어졌다. 어쨌든 사람인 대표는 "인턴 경험자나 올드루키와 같은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우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벌, 학점, 토익 점수 등의 보여주기식 스펙보다는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인재 스펙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직 대기업" 욕심 버려야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직업관을 세우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희수 잡코리아 대표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서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좋아하고 관심있고 잘하는 일에 도전한다면 달라진 채용 트렌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영기자 kim@

노태우는 추징금 '완납'

전 사돈 신명수 80억 대납

노태우(81·왼쪽 사진) 전 대통령 전 사돈인 신명수(오른쪽)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대납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전용 계좌에 80억여원을 이체, 미납 추징금 일부를 대납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넘어갔다.

앞서 노씨 동생 재우씨, 신씨는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대납하고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추진해왔다. 이날 신씨의 추징금 대납으로 이 합의가 최종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서 신씨는 미납 추징금 중 80억4300만원을, 재우씨는 150억원을 대납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동아원과 관련 업체와 관계자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정윤희기자

"동시다발로 전쟁 준비"

제포동의안 "이석기, 3가지 지침·총공격 명령시 속도전"

이석기 '가장 길었던 하루'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일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종종 미소를 짓거나 심각한 표정을 보이기도 한 이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접수된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3월 초 진보당 혁명조직(RO) 조직원 홍순석씨 등 지역책을 통해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후 이 의원은 5월 10일 경기도 광주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RO 조직원 130여 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 회합을 개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연단에서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고, 정전협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선동했다.

또 이 의원은 수차례 RO 조직원 강연을 열어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제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각 동지들이 자기 조소에 놓인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국가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적대해야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에게 친전을 보내 "국정원이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여 작년 부정경선 조작에 이어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해줄 것을 호소했다.

/안준기자 mikini@metroseoul.co.kr

北침정 감시 레이더 서북도서 배치 방위사업청은 2일 침투하는 적의 선박이나 함정을 실시간 감시·탐지하는 이동형 해상감시레이더를 서북도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해상감시레이더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구형 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51억원을 투자해 연구 개발했다. 대당 가격은 3억원. /방위사업청 제공

올해 한강 다리서 102명 자살시도…94% 구조

올해 한강 다리에서 102명이 자살을 시도했으며 구조율은 94.1%로 급증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한강 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구조율은 2009~2012년까지 50%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7월 말 현재 94.1%로 급증했다. 다리별로는 마포대교(36명), 한강대교(6명), 서강대교(5명) 순으로 자살 시도가 많았다.

李 체포안 국회보고 이르면 오늘중 처리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일본발 방사능 공포 확산…식품 등 검사해주고 관련정보 공개

정부 대신 시민이 나섰다

2일 서울 영선구 목동 서울식약청 1시 열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모으고 방사능 검출 시험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방사능 관련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홈페이지 '방사능와치'(nukeknock.net)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방사능 와치에는 정보공개센터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축적한 수입산 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자료부터 국내 원자력발전소·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핵시설 관련 정보, 핵에너지 관련 정보 등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강언주 간사는 "정부와 공기업, 민간 등이 생산한 핵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먹을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직접 한다. 환경운동연합·한살림연합 등 7개 단체가 구성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식품·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기금 1억5000만원을 모아 마련한 방사능측정장치 '감마 핵종분석기'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설치하고 방사능 성분 검사를 대행한다. 측정비는 10만원으로 비교적 고가지만 신청 접수가 밀려들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방사능 공포와 우려 등은 핵 소사키 위해 민자력 측정 기구를 확충하고 정확한 정보를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전화번호 몇개나 외우세요

스마트폰 사용자 평균 7.2개 20대 가장 적어

스마트폰 사용자는 평균 7.2개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스마트폰 사용자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평균 8.8개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으며 30대 7.8개, 20대 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스마트폰이 삶을 똑똑(스마트)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다'(61.4%)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신속한 정보 검색'(86.2%), '빠른 업무처리 속도'(35.1%), '다양한 소통 창구'(28.9%), '풍성한 엔터테인먼트'(14.2%), '지식량 증가'(9.2%) 등을 꼽았다.

삶이 '똑똑해지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중독된 듯 늘 스마트폰을 끼고 있다'(50%), '머리보다 손이 우선한다'(43.6%), '빠른 것에 익숙해져 인내심이 부족해졌다'(39.7%), '신상정보 노출이 쉬워졌다'(23.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채팅·문자메시지(58.6%), 뉴스 검색(39.1%), 음악 감상(38.2%), 이메일 확인(30.4%) 등에 사용 빈도가 높았다. /이국현기자

가야금 삼매경 2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1회 청소년 종합 예술제에 앞서 청소년들이 전당 밖에서 마지막으로 가야금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호 태풍 '도라지' 주말 한반도 상륙 가능성

2일 발생한 제17호 태풍 '도라지'가 북상하면서 6일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이날 오전 3시께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 도라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형 태풍으로 시간당 8km 속도로 느리게 북동진하고 있다. 3~5일 일본 오키나와와 가고시마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는 6일 이후 제주 먼 바다를 지나면서 간접 영향권에 들면 곳곳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진로가 유동적이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종리기자

나눔장터 보고 정크아트 만나고… 재활용 함께해요

시 6일 '자원순환의 날' 맞이 행사 다채

부산시는 오는 6일 '제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자원 사랑의 마음을 높이고 생활 속 재활용 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펼친다.

올해 기념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실천 사례 발표, 재활용 작품 전시, 시민 나눔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한·일 리사이클링 아트전 등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6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유관 단체, 시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연다.

이어 오전 11시 시청 녹음광장에서는 재활용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는 재활용을 활용한 쓰레기 생명을 불어넣다, 재현수막을 이용한 '선풍기가 웃을 일다' 등 유명 전문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재활용 관련 공모전 수상작, 자치구군 출품작, 우리동네목공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담장이 가지예술운동 등 민간단체 참여작 등 140여 점을 선보인다. 이후 작품들은 시청 도시철도 지하통로로 옮겨져 오는 13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또 동네광장에서는 재사용 악기를 활용한 남신놀이마당패가 흥겨운 축하 공연을 펼치고, 녹음광장 일원에서는 폐목재 이용 다용도 걸이만들기 등 재활용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교실도 열린다.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 나눔장터'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녹음광장에서 열린다.

7일 오전 10시 경찰청 통로에서는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린다.

부산지역 7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해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 장난감, 헌옷 등을 교환·판매하며 재활용품으로 머리핀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 등 체험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온 병원은 이날 어린이 벼룩시장을 찾은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 체크 등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시청 제1전시실에서는 아트작가 모임 '레인보우공작소' 주관으로 '한·일 리사이클링 아트전'이 개최된다.

이번 아트전에는 한·일 아트작가 50여 명이 폐기물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표현한 재활용 작품들을 전시한다. /뉴시스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검거 'SNS의 힘'

부산 금정경찰서는 2일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이모(25)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50분께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 여대생 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새벽 2시23분께 같은 기숙사에서 문이 열린 기숙사 방에 들어가 다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수배 전단(3000장)과 부산경찰 SNS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를 공개 수배했고, 수배 전단을 본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오후 5시45분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범행 당시 용의자가 착용한 것과 똑같은 옷과 모자, 가방 등을 압수했다.

이날 이씨의 검거에는 SNS 등이 큰 힘이 됐다. SNS 등을 통해 수배 전단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정적인 제보로 이어진 것.

특히 부산경찰 페이스북에 이씨에 대한 수배 전단이 게재된 이후 부산시민 3명 중 1명꼴인 106만여 명이 수배 전단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공개수배 이후 시민들의 제보 전화가 빗발쳤다"면서 "시민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서양 맛의 실크로드' 2일 오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뷔페 식당에서 요리사들이 중국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 호텔 뷔페 식당은 오는 15일까지 중국 4대 지역(북경, 사천, 광둥, 상하이)과 이탈리아 3대 지역(북부, 중부, 남부)의 대표 요리 16가지를 내놓는 '동서양 맛의 실크로드' 행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텅빈 현대차 수출 선적부두 2일 수출용 차량이 선적을 위해 대기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부두 일부가 텅 비어있다. 현대차 노조는 주말 특근 거부에 이어 이날 오전조, 오후조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뉴시스

5년내 취업자 25만명 더 늘린다

노·사·민·정 '고용률 70% 달성' 전략보고회

부산시가 앞으로 5년간 취업자 25만 명을 늘려 현재 고용률 61.9%를 70%로 높이는 전략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에 따라 3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까지 '부산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민·정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허남식 부산시장) 위원 및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고회는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등 관계 기관의 전략을 종합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종합 보고에 이어 사단법인 안심생활의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 발표와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노·사·정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부산시가 마련한 고용률 70% 달성 추진 전략은 '함께 일하는 도시,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5년간 취업자 25만 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장년, 노년의 고용률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 전략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일자리 2% 더 늘리기 확대 강화 등 5개 추진 과제 22개 시책으로 구성돼 있다.

부민병원 족부질환 건강교실

부민병원은 오는 4일 오후 3시에 2층 대강당에서 족부 질환에 대한 건강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열리며 서울부민병원 관절센터 정문재 부장 및 부산부민병원 관절센터 정주선 과장이 나선다.

부민건강교실의 9월 주제는 '육신의 족부 통증, 진단부터 치료까지'라는 내용으로 ▲다양한 족부 질환의 원인과 진단 ▲무지외반증과 족저근막염의 증상과 치료 ▲류마티즘 관절염의 단계별 맞춤 치료 ▲당뇨발과 통풍 ▲스포츠 손상 등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 문의 (051)330-3286, (02)2620-0131

시민 안전문화운동 실천 부산광역시협의회 출범

부산시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광역시 협의회' 출범식을 오는 4일 오후 3시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협의회 위원과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인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조준필 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해 4대 전략 및 23개 분야별 중점 관리 과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시민안전종합 대책'을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5층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준호
부산지사장·대표 김보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9-2100
독자센터 (02)721-9801
2012년 0월 0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문화' 싣고 달리는 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3대 문화경영 비전 선포…테마역 확대 등 실시

부산도시철도가 품격 높은 문화철도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부산교통공사는 2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누적 승객 60억 명 돌파를 계기로 도시철도 문화경영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 자리에서 3대 문화경영 목표를 ▲고품격 문화 공간 제공 ▲나눔의 문화콘텐츠 제공 ▲지역 문화 행사로 정하고 도시철도 곳곳에서 문화의 향기가 흐르도록 만들 예정이다.

세부적인 계획으로 도시철도 역사를 문화를 품은 테마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수안역(임진왜란 역사관), 연산역(상설공연장), 교대역(스토리텔링) 등 현재 20개 역에 조성된 테마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도시철도 역과 열차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철도 역사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공연, 전시회 등을 마련하고 10월 중에는 전동차 내부 방송시설을 이용해 승객 사연과 신청곡을 틀어주는 '음악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쾌적한 열차 환경 구축을 위해 잡상인,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안으로 노후된 열차 객실 시트 1만9400개를 교체할 계획이다.

박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왔던 도시철도 문화사업을 체계적, 지속적,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시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 기능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는 문화도시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친환경 함양 오미자 대령이오 2일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박성래(41)씨 가족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탐스럽게 익어가는 오미자를 수확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함양군청 김창환 주무관 제공

시내버스 안전관리 빈틈없게

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일제 합동점검

부산시는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2일부터 30일까지 시내버스의 안전 관리 운행을 위한 일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파열 및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화재발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지역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33곳 2511대 중 2분기 점검을 받지 않은 17개 업체 1289대와 한정면허 2개 업체 24대를 대상으로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동차 안전 관리 이행 여부 ▲좌석 불량 및 파손 자동차 운행 여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 등이다.

점검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파열 및 CNG 버스 화재사고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를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분기까지 점검을 통해 CNG 버스 내압용기 점검 관리 부적합 11건, 재생타이어의 마모 한계 초과 및 훼손 23건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39건 등 총 161건을 적발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뉴시스

8년간 372회 유독가스 방출 업체 적발

8년 동안 372차례에 걸쳐 독성물질인 염화수소를 공기 중에 방출한 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6명이 적발됐다.

울산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B 폐기물 소각업체 대표 A(69)씨와 업체 공무이사 C(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환경기술인 등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5년 8월~2013년 5월까지 8년간 총 372회에 걸쳐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대기 중에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화수소를 흡입하면 기침, 숨막힘, 코·인후 및 상기도 염증이 생기고, 업체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몇 분 내로 사망할 수 있어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사용한 독가스의 주성분이다.

온산 수암로 확장 개통

울산시는 2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 신어천사거리까지 수암로 확장 사업 공사를 2003년 착공해 8월 말 준공 개통했다고 2일 밝혔다.

수암로는 길이 3.54km, 폭 20m 왕복 4차선에서 폭 30m,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다.

구간별로는 2007년 1월 공업탑로터리~야음사거리(2.14km), 2011년 7월 야음사거리~남울산KT사거리(0.4km), 2012년 3월 남울산KT사거리~울산축산농협(0.26km) 구간이 마무리됐다. 나머지 구간인 울산축산농협~신어천사거리(0.74km)가 8월 말 완공됨으로써 4개 전 구간이 확장 개통됐다.

오늘 평생교육 정책포럼

부산시와 부산시평생교육진흥원은 '새 정부 평생교육 정책과 부산시 평생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3일 오후 2시30분부터 해운대 아르피나 큰보배홀에서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평생교육이 '국민행복시대'의 중요 정책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부산의 평생교육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새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과 지역 평생교육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이희수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이 한다.

KT 먼저 '광대역 LTE-A' 쏜다

이달 서울 시작 10월 수도권 등 단계적 서비스 … 기존 LTE폰도 빨라져

KT가 국내 이통사 가운데 가장 먼저 광대역 LTE-A 서비스에 들어간다.

KT는 최근 주파수 할당에서 1.8㎓ 주파수 대역에서 15㎒ 블록을 새로 할당받음에 따라 9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0월 중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단 광역시에서는 내년 3월에,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이용하면 LTE-A 단말기의 다운로드 기준 속도가 최대 150Mbps까지 빨라지며 기존 LTE폰도 100Mbps까지 속도가 올라간다. 특히 주파수가 인접 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단한 장비 교체만으로 LTE망을 LTE-A망으로 쓸 수 있다.

게다가 2개의 주파수를 묶어 사용하는 경쟁사와 달리 1개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전력 소모가 적어 스마트폰 배터리도 28%가량 오래 쓸 수 있다.

표현명(왼쪽) KT 사장이 2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KT는 광대역 LTE-A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음성 무제한 요금제인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와 '모두다올레 요금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2배 프로모션'의 대상을 모든 LTE 요금제 이용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T는 지난 7월부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2배 늘려주고 멤버십 포인트, 콘텐츠 서비스 등을 최대 2배로 늘려주는 프로모션을 10월 말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또 광대역 LTE-A 서비스 개시에 맞춰 모바일 IPTV 서비스인 올레TV모바일 서비스를 풀HD급 고화질 서비스와 5.1채널 고음질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유무선 IPTV를 이어보기 할 수 있는 콘텐츠도 1만7000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SKT 하반기 채용 30% 지역인재로

SK텔레콤이 지역 인재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 중부(충청권), 서부(전라권), 경북, 경남의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지원자 간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B2C·B2B 마케팅 직군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올 하반기 전체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SK텔레콤은 13~14일 경기도 이천 소재 연수원에서 'SK텔레콤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캠프 참가 신청은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SK텔레콤 힐링캠프 전용 홈페이지(www.skt-healingcamp.com)에서 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재벌 '주식 숨바꼭질'…비영리 법인에 5조

국내 10대 그룹 소속 비영리 법인이 지닌 계열사 주식자산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 활동을 하는 이들 법인이 지배 구조 지원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강화나 편법 경영권 승계로 악용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그룹이 설립한 19개 비영리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지분 가치 평가액은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4조72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의 비영리 법인인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복지재단 등 3곳이 보유한 주식지분이 2조72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아산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이 5495억원이었고, 롯데그룹의 삼동복지재단과 롯데장학재단이 3835억원, 현대차그룹의 정몽구재단이 3592억원 순이었다. 이들 비영리 법인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6조8365억원 규모로, 자산의 약 70%가 계열사 주식인 셈이다.

롯데리아

와일드 쉬림프 버거 먹고 알찬 쿠폰북 받자!

(세트, 팩 구매시 증정)

라지 세트 무료 업그레이드 2매 / 아이스티, 치즈스틱, 양념감자 천원의 알찬 혜택

※ 제품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market index <2일>

코스피	코스닥
1924.81 (-1.55)	525.18 (+8.44)

금리	환율
2.82 (+0.04)	1098.50 (-10.50)

뉴스&뉴스

가을에는 '트레일 러닝' 신세계인터내셔날 프리미엄 아웃도어 스토어 살로몬 아웃도어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에 적합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카드 부가 혜택 축소 급증

● 2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가 혜택 의무 유지기간(1년)이 지난 뒤 2년 내 줄인 부가 혜택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5개였다. 이 부가 혜택이 탑재된 카드를 썼던 1874만명이 불이익을 봤다. 축소된 부가 혜택은 2010년 6개에서 2011년 18개, 지난해 63개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민지기자

상장건설사 18곳 적자 기록

●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별도 기준으로 상장 건설사 58곳 중 18곳(31.0%)이 상반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13곳은 지난해 상반기 흑자를 냈다가 올해 상반기 적자로 돌아섰고 1곳은 적자 규모가 커졌다. 4곳은 적자가 이어졌지만 그 규모는 줄었다. /김현정기자

30대 그룹 협력사 지원 증가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 상반기 협력사 지원 실적과 하반기 지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의 올 상반기 지원 실적은 79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에는 85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의 올해 협력사 지원 규모는 연초 지원 목표인 1조6156억원보다 2%(320억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지기자

화장품 할인 탓 '물가상승률 착시' 논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화장품 할인 판매에 힘입어 1.3%에 그치자 착시효과 논란이 일고 있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했지만 여름철 화장품 할인에 따라 상승세가 상쇄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로 6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한 이후 다시 안정된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상반기 하락 추세를 보이다 7월 1.4%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째 1%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는 저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월 대비로 소비자물가는 0.3% 올라갔다. 전월비로는 지난 6월 0.1% 하락한 이후 7월 0.2% 등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지기자

꼬마들 추석용돈 담을 통장 '풍년'

은행 어린이 전용상품 '최고금리 연 3%' 등 다양

추석 연휴 동안 어린이들은 집안 어른들로부터 적지 않은 용돈을 받게 된다. 명절 때마다 챙겨둔 아이 용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면 자녀에게 '어린이 통장'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자녀에게 용돈도 주고 경제관념도 길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재미디 아기자기하고 앙증맞은 캐릭터로 꾸며진 어린이 전용 통장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해 통장을 디자인한 'KB 주니어스타 통장·적금·체크카드'를 내놨다. 고객이 쓰고 남은 용돈이 3만원 이상이면 지정일에 스타 적금으로 자동이체하는 스윙 서비스도 제공된다. 학자금 등 목돈 마련에 적합한 스타 적금과 영화 놀이공원·편의점 할인 등의 혜택이 담긴 스타 체크카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어린이 금융 상품으로는 '우리 토마스 통장·적금·예금'이 있다. 토마스적금으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하거나 '우리아이사랑카드'를 결제 계좌로 지정하면 1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2.1% 금리를 제공한다. 복리형 상품인 토마스적금은 1~5년 연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토마스 정기예금은 가입 금액별로 자동 금리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의 '신난다~ 후토스! 어린이통장'은 통장 잔액 100만원까지 최고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적립식 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입출식과 적립식에 같은 날 가입하면 입출식 통장 적용 금리는 연 3.0%까지 가능하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손목 위 보석' 10억짜리 시계 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에서 모델들이 9억9000만원짜리 손목시계(가운데) 등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0일까지 에비뉴엘에 위치한 시계 브랜드 '피아제' 매장에서 약 90억원에 달하는 시계 17점을 선보이는 '피아제 울트라-씬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전'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연말까지 12만가구 주택기금 8조 수혜

8.28 전월세 대책으로 올해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약 8조원이 총 12만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전세 자금으로 지원될 전망이라고 국토교통부가 2일 밝혔다.

일반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매입임대사업자 주택 구입자금 지원 등 인하된 금리와 대출 조건은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적용된다.

이 가운데 4조5000억원이 생애 최초, 일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돼 5만2600여가구가 대출을 받게 된다.

또 근로자·서민구입자금으로 책정된 예산 2조원 중 4000억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3000가구 시범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원래 목적대로 쓰여 총 1만9700가구(주택 구입자금 평균 대출액 8000만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 중 6500억원을 전환해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현행 5%에서 2.7~3%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한다. 대출 한도는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김현정기자

금값 다시 '반짝'…날아오르려나

관련펀드 최근 수익률 7% 시리아 사태 이어 中·유럽 경기회복 '호재'

올 들어 바닥 없이 폭락하던 금값이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글로벌 금 투매현상까지 나타나며 금 펀드 보유자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으나 최근 한 달 새 금 펀드 수익률은 일제히 살아났다.

2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펀드 16개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7.33%로 집계됐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소식이 전해진 최근 일주일새에는 평균 1.70% 오르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금값은 올 들어 20% 넘게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 실물 경기의 회복 조짐에 반등세를 타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12월물 가격은 온스당 1412.9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6월 말 1180달러의 최저점까지 떨어졌으나 7월 이후로는 서서히 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과 유럽의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을 포함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했다. 올 상반기 중국의 금 수요는 576t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늘어난 상태다.

일부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미국 출구전략 우려에 출렁인 여파도 원자재 시장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형 동양증권 연구원은 "일부 아시아 신흥국의 환율 시장은 미 출구전략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투기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원자재 시장은 실물 경기 개선에 따라 호조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metro HongKong

metro France

파리시민 72% "휴일 외출 대신 인터넷"

프랑스 파리 시민 10명 중 7명은 여가 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파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터넷 서핑(72%)이 휴일 여가 활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TV 시청이 2위, 영화 관람이 3위를 기록했다. 시민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외출을 자제하게 된다"면서 "주말이나 휴일에 집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metro Russia

'가장 기발한 케이크' 만들기 대회 화제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제 디저트 축제의 일환으로 '가장 기발한 케이크'를 뽑는 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케이크로 만든 모양의 케이크와 꽃으로 장식된 원형 계단을 달려오는 신랑·신부를 표현한 4단짜리 웨딩케이크는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제과업체 대표 알렉세이 스미르노프는 "대형 웨딩케이크를 만드는 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며 "밑에 2단은 오븐으로 만들어져 먹을 수 있지만 위의 2단은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metro Mexico

트위터 영향력 멕시코시티 최강

전 세계에서 트위터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어디일까?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서울?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의 도쿄? 글로벌 금융의 심장부 뉴욕? 정답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대학이 경제잡지 포브스가 지난 7년간 집계한 트위터 관련 통계를 분석, 트위터 이용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위터 메시지가 나온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였다. 하루 생산되는 세계 트위터 메시지 중 2.86%가 이곳에서 발송됐다.

멕시코시티도 크게 뒤지지 않았다. 전 세계 트위터 메시지 가운데 1.03%가 멕시코시티에서 생산돼 '인터넷 파워' 대열에 올라섰다.

비록 메시지 총량에서는 밀렸지만 멕시코시티에서 트위터의 위력은 그 이상이다. 멕시코시티에서는 고발적인 성격을 띈 트위터 메시지 하나로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나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가 거론돼 해결된 경우가 많다. 올해 초에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일반 시민의 올린 트위터 항의 메시지를 근거로 연방 소비자원의 수장을 교체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멕시코시티 시민들은 트위터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치·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YoSoy132'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총선 관련 트위터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정치 판세를 뒤흔들었다. 최근에는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 보험업자의 주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대륙 감동 먹인 '휠체어 천사'

장애 이겨낸 체조스타 상란, 매니저와 결혼 발표… 절절한 러브스토리 화제

중국 체조 스타 상란(桑蘭·사진 아래)이 올해 말 매니저 황젠(黃健·위)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지만 '휠체어 위의 천사'로 변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대륙을 감동시키고 있다.

1990년대 중국 체조계의 샛별 '도마여제'로 불리며 눈부시게 활약했던 상란. 그는 1998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친선대회에서 연습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사람들은 그가 전신마비로 영원히 병상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란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강인한 의지로 버티며 힘든 재활치료를 하루도 빼놓지 않은 끝에 그는 불편하게나마 두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상란은 휠체어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천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9년 뉴욕 타임스스퀘어 점등식을 시작으로 2000년 제5회 파랄림픽 성화 주자, 중국장애인예술단 임시 등 많은 공익 사업에 참여했다.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상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특약 기자로도 활동했다. 그는 '상란 2008'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선수로 못다 이룬 올림픽 출전의 꿈도 이뤘다.

지난 10여 년간 상란은 여러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13억 중국인을 감동시켰다. 이런 상란의 곁에는 힘든 여정을 함께해온 '왕자님'이 있다. 바로 그의 매니저 황젠이다. 베이징시 현실대표를 은퇴하고 전업 매니저가 된 황젠은 우연한 기회로 상란을 만난 뒤 줄곧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전직 체조 스타의 곁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상란은 수많은 소문과 스캔들의 주인공이었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등 2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의 따가운 시선과 냉소도 두 사람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다. 황젠은 "2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상란이 불편한 팔로 화장을 하는 모습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다"며 "상란의 생각과 말이 곧 내 생각"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정리=조선미기자

취업준비인구 58만 10년새 2.6배 증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백수 생활을 감내하는 취업 준비자가 10년 사이에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직된 노동 시장 탓에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7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5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22만2000명)보다 2.63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혼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15만5000명에서 38만2000명으로 10년 사이 2.46배나 늘어났다. 반면 취업 관련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20만2000명으로 10년 전 20만700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사람인 관계자는 "취업 준비생이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32만7000명으로 10년 전(32만8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스펙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소설 '온라인 연재' 새 트렌드로

작가 독자층 넓히고 포털 페이지 뷰 늘어 '윈윈'

소설이 IT와 손잡고 있다. 작가와 출판사는 독자층을 넓히고 포털사이트는 페이지 뷰를 늘리는 '윈윈'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정상에 오른 조정래 작가는 신작 '정글만리'를 출간 전 네이버에 108일간 연재했다. 네이버 연재 당시 이 작품은 1200만 페이지 뷰를 기록해 큰 인기를 모았다.

'정글만리'를 펴낸 해냄출판사는 "이번 온라인 연재는 스마트폰 주 이용자층인 젊은 세대에도 조정래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독자층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SK플래닛은 국내 최초로 전경린·김이설·김선영·박범수·조경란 등 유명 소설가의 신작을 모바일에 연재하는 'T스토어 연재소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작품은 주 1회 무료로 연재되며, 해당 작품은 연재 완료 후 전자책과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소설의 온라인 연재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콘텐츠 범위를 다양화하고 중견 작가에게는 스마트 기기 이용 독자와 소통하는 새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명 작가들이 포털에 연재 무료로 소설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 유료 출판 시장을 침체시키고, 문학에 대한 이미지가 가벼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글만리'는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기준 30만부 이상이 팔리며 무라카미 하루키와 신작을 거뜬히 제쳤다.

이에 대해 조정래 작가는 연재 후기를 통해 "미국에 사는 독자가 '정글만리'를 인터넷으로 공짜로 읽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내 놀라웠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국내 완성차 업계 8월 수출·내수 '씽씽'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지난달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5개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8월 한 달간 국내외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25.1% 증가한 68만9870대를 팔았다.

내수에선 29.0% 증가한 11만338대를, 수출에선 24.3% 늘어난 57만9532대를 판매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8월의 경우 장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컸던 시기여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회사의 내수 판매량은 전달과 비교하면 현대차는 19.6%, 기아차는 6.0% 감소했다. 그럼에도 해외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을 만회해 전체 실적에선 현대차(5.0%), 기아차(5.7%) 모두 전달보다 개선됐다. /박상훈기자 zam@

비무장지대 품은 '강원도의 힘' 재발견

정전 60주년 기념 미션 체험 행사 '2013 RUN DMZ' 성료… 멸종위기종·민속문화 등 생생한 추억

세계평화공원 조성 기대감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이색 체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강원도 정전 60주년 기념 신개념 미션 체험 행사 '2013 런 DMZ 인 강원(RUN DMZ in Gangwon)'이 그 주인공이다.

강원도와 인제군, 양구군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가족, 친구 등으로 구성된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강원도 각 지역의 명소를 이동하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K.E.N(대한민국 영어강사 모임) 소속 외국인들도 참여해 강원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했다.

행사는 남과 북을 나누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인간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아홉 마리의 동물을 사신으로 임명해 평화와 생명의 꿈을 연다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행사는 신촌민속박물관과 박인환문학관, 여초서예관,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등지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먼저 신촌민속박물관에서 과거 산간지역 촌락에서 실제 사용하던 도구들을 둘러보고, 이 이름을 맞히는 과제를 수행했다.

2013 RUN DMZ in Gangwon 행사 참가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후 바로 옆에 위치한 박인환문학관으로 이동해 행사 스태프 4명의 팬터마임을 보고 각각의 글자를 모아 단어 애니를 만드는 과제를 수행했다. 인제 박인환문학관은 과거 박인환 시인이 살던 시대의 골목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곳으로 책방·살롱·다방·술집 등 1940~50년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여초서예관으로 이동해 여초 김응현 선생의 서체를 감상하고, 하늘의 사신을 찾는다는 콘셉트로 여러 과제를 수행했다. 먼저 까막딱따구리의 알을 보호한다는 주제로 2인 1조의 과제를 수행했고 여초서예관 곳곳에 숨겨진 '홍익인간' 글씨를 찾아다녔으며 나비를 접어 날리는 등 다양한 과제를 즐겼다.

마지막 장소인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열린 '물의 사신'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멸종위기 동물인 열목어와 등상어 모양의 도장을 찾아 DMZ평화생명동산 곳곳을 돌아다녔고, 과제로 받은 암호를 풀어 해당하는 장소에서 수달의 발자국을 찾기도 했다. 또 과제로 받은 사진과 같은 장소를 찾아 같은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K.E.N 소속 외국인이 멸종위기 2급 식물인 [illegible]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의 반응도 대단했다.

단순한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강원도 곳곳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멸종위기의 동식물에 대해 알고 민속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서울에서 온 한 20대 참가자는 "도시에서 맛보기 힘들었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소재의 과제들이 흥미로웠다"며 "내년에 제2회 대회가 열린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국형기자

스마트폰 갖다대면 밥솥이 보글보글

근거리무선통신 기능 갖춘 프린터·오디오 등 눈길

프린터, 오디오, 밥솥과 같은 친근한 기기들이 스마트폰의 단짝으로 변신 중이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쓰임새도 덩달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프린터다. PC의 주변기기로 여겨졌던 프린터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다대기만 하면 출력이 된다. 삼성 '스마트 프린터 NFC'는 레이저 프린터 업계 최초로 이 기능을 적용, 모바일 프린팅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나 와이파이 설정, PC 연결 등의 준비 과정 없이 스마트폰을 프린터에 갖다 대면 단말기에 있는 이미지, 문서, e메일 등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삼성 모바일 프린팅 앱'을 설치하면 PDF, MS 오피스 문서, SNS 콘텐츠 등을 출력할 수 있으며 복합기에서 스캔한 문서를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팩스 전송이 가능하다.

KT가 제주 여행객을 위해 준비한 '올레제주여행'도 눈길을 끈다.

이 앱을 담은 스마트폰으로 제주지역의 관광지에 설치된 NFC 관광 안내판을 터치하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주방가전 업체 쿠쿠는 스마트폰으로 취사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10인용 밥솥 '스마트 NFC'를 선보였다.

스마트폰에 쿠쿠 앱을 내려받은 뒤 밥솥에 가져다대고 앱 메뉴에서 쿠킹, 자가 진단, 기기 음량 및 현재 시간 설정, AS센터 찾기 등을 선택하면 된다.

별도의 버튼 조작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밥솥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앱의 쿠킹 메뉴에는 다양한 종류의 취사 메뉴와 조리법이 내장돼 있다.

조리법에 표기된 준비 재료가 집에 없으면 앱을 통해 간편하게 쇼핑 리스트를 메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쇼핑 리스트를 전송할 수 있다.

자가 진단 메뉴의 경우 고장이 나면 문제점을 알려주는 '기기 점검'과 세척 주기를 알려주는 '자동세척 실행주기 체크' 기능도 탑재됐다.

/박병준기자 pjan@metroseoul.co.kr

갤럭시NX 카메라가 쏘는 가을선물 삼성전자는 자사의 오프라인 매장인 디지털프라자, 딜리이트숍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미러리스 카메라 갤럭시NX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호 필름과 핸드그립, 카메라 가방 등 사은품을 주는 '폴링 인 폴(Falling in Fall) 페스티벌' 행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e메일 훔쳐본 페북·트위터·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고객의 e메일을 훔쳐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사이버 보안업체 '하이테크 브리지'는 50대 주요 IT 대기업의 고객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e메일 전송자와 수신자만 알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이테크 브리지는 개인 e메일에 특정 웹주소를 넣어 조사 대상 IT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고 열흘간 지켜본 결과, 페이스북 등 6개사가 이 링크를 열어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일리아 콜로첸코는 "6개사가 e메일 전송자와 수신자만 알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한 만큼 이 링크가 포함돼 있는 e메일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전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비밀 정보 수집 행태를 폭로한 뒤 이뤄졌다. /조선미기자

한뿌리 또 한뿌리! 온가족 "심봤다~"

세계가 인정한 건강 명품축제 '금산인삼축제' 6일 개막해 열흘간 활력충전·건강쇼핑 손짓

강인한 에너지로 삶의 활력을 북돋아줄 '금산인삼축제'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인삼의 본고장 충남 금산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금산의 대표 특산물인 인삼과 건강을 결합한 이번 축제에는 건강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함박웃음을 선사해줄 다채로운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지난 2010년 세계축제협회 축제도시 선정에 이어 피너클 어워드 4년 연속 수상 등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관광 축제로 자리 잡은 금산인삼축제를 만나보자.

◆축제장 가득한 인삼 향기

축제장 곳곳에는 인삼으로 즐기는 체험거리와 흥이 절로 나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인삼민속촌에서는 전통 저울로 인삼 무게 달아보기, 인삼 말리기, 짜기·접기, 인삼 씨앗 고르기, 인삼 엿장수, 인삼 재배 과정 체험 등을 마음껏 경험해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인삼 깎기 체험을 하나해 자신이 직접 깎은 인삼을 건강음료 등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금산백작소'를 운영해 주목된다.

또 추억의 6070 거리에서는 인삼엿장수, 튀밥장수, 인삼달고나 등 추억의 옛 먹거리와 함께 추억 DJ 인삼다방, 인삼교실, 복고댄스, 통기타 공연 등의 볼거리가 어우러져 과거 추억을 웃음으로 되새겨볼 수 있다. 3000ℓ 초대형 인삼병이 개봉되는 인삼주막에서는 퓨전 각배임쇼를 관람하면서 인삼주를 맛볼 수 있으며 인삼약초 요리 만들어 먹기 체험 코너에서는 인삼파전, 인삼인절미 등을 직접 만들어 먹어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인삼 캐며 건강까지 챙기기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연 인삼 캐기 체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제 기간 마음껏 체험이 가능한 인삼 캐기 체험은 인삼밭에 들어가 가족이 함께 인삼을 캐보는 재미와 함께 현지에서 싱싱한 금산 인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전국의 건강 관련 콘텐츠가 총망라된 건강체험관에서는 홍삼족욕 체험, 홍삼떡 마사지, 홍삼 다이어트, 한방 소화제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인삼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는 전문 건강 체험, 내계의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벌써 15회를 맞이한 국제인삼교역전에서도 몸에 좋은 홍삼 제품, 인삼 화장품 등 인삼 가공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어 알뜰쇼핑이 가능하며, 참가 업체들의 현장으로 진행되는 깜짝 경매 이벤트는 인삼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가족 모두 모여 즐기는 인삼축제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축제인 만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금산인삼관에서는 인삼의 재배 과정 및 특이 인삼 계열체 체험, 인삼 요리별 효능 및 특징을 배울 수 있고, 3D 영상체험관을 통해 금산과 인삼에 대한 재미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가족이 함께 관람하기에 제격이다. 또 행사장 동선을 따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 등의 가족문화체험존이 마련되며 뇌파게임, 큐브퍼즐 등 자녀 두뇌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우리아이 두뇌체험존' 등이 새롭게 준비된다.

가족의 소원을 적어 보청등에 부착하는 효사랑 인삼소원등을 통해 김거사의 효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전국창작동요대회, 건강댄스경연대회, 전국주부가요제, 전국 통기타포크송 경연, K-팝 커버댄스 경연 등의 전국형 경연이 펼쳐져 축제를 찾는 가족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황재용기자

지난해 금산인삼축제의 인삼 캐기 체험에 참가한 관광객들(위).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인삼제품 쇼핑은 금산인삼축제에서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행사정보

- 날짜: 9월 6~15일
- 장소: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 홈페이지: www.insamfestival.co.kr
-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insamfest

가을 부산 '할인의 바다'…지갑열 때마다 '와! 싸다'

2013 Busan Grand Sale

내달 10일까지 쇼핑·관광축제

재래시장부터 백화점·호텔·음식점 등 최고 70% 세일

부산 최대 쇼핑 관광 축제인 '2013 부산그랜드세일'이 다음달 10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올해 '부·울 경 방문의 해'를 맞이 부산그랜드세일 규모를 지난해 2400여 업체에서 3838개 업체로 대폭 확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내국인들도 부산 주요 관광지의 호텔·면세점·음식점을 최고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국제시장, 부전인삼시장, 부평깡통시장, 골드테마거리 등 4개 재래시장에서 1900여 개의 점포가 행사에 처음 참여한다. 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대한프리몰 등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쇼핑몰 등 24곳도 세일 행사에 동참한다. 특히 지난달 문을 연 신세계사이먼부산프리미엄 아울렛은 이 기간 기존 할인율에 5~10% 추가 할인이 가능한 VIP 쿠폰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웨스틴조선·파라다이스·그랜드·노보텔·롯데·이비스호텔 등 특급 및 1급 상당 호텔 18곳과 5개의 게스트하우스도 통 큰 세일을 진행한다. 해운대 견오·코오롱씨클라우드호텔은 70% 할인율을 적용, 부산국제영화제 기간(10월 4~12일)을 제외하고 평일(월~금요일) 객실을 1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과 농심호텔은 각 60%, 해운대센텀호텔(주중)은 50%, 롯데호텔(주중)과 해운대그랜드호텔은 각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게다가 해운대에서 요트를 타고 광안대교와 누리마루, 오륙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요트(8)는 탑승료도 10% 할인되며 부산시티투어버스는 탑승료 20%를, 팬스타크루즈와 티파니21은 각각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이제갈비·와석1번가·아미산 등 음식점 15곳도 세일에 참여하고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아쿠아리움 등도 행사에 참여한다.

부산그랜드세일 할인 쿠폰은 김해공항을 비롯해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등 관광안내소와 그랜드세일에 참가하는 호텔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www.bto.or.kr)에서도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51)780-2177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녹색마녀' 옥주현 "대작 부담감 있다"

뮤지컬 '위키드' 제작발표회

지난해 내한 공연 당시 큰 히트를 기록한 뮤지컬 '위키드'가 옥주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한국어 버전 공연을 펼친다.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25억 달러(약 3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3600만 명을 동원한 히트작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내한 공연은 260억원의 매출, 23만5000명의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국내 상연 뮤지컬 사상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

이 작품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소설 '위키드: 사악한 서쪽 마녀의 삶과 시간들'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쁜 마녀로 그려지는 녹색 피부의 엘파바를 의협심 있는 인물로, 착한 마녀 글린다를 욕심 많은 인물로 캐릭터를 바꿔어 호평받았다.

제작사 설앤컴퍼니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제작발표회에서 한국어 버전 공연의 캐스팅을 공개했다. 옥주현이 박혜나와 함께 주인공 엘파바를 번갈아 맡고, 정선아와 김보경이 엘파바 친구인 글린다를 연기한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옥주현은 "오리지널 프로덕션 제작진이 심사한 오디션에 참여할 당시 몸이 아파서 작품과 연이 없나 보다 라고 낙담했으나 발탁됐다"면서 "기대가 많은 대작이라 부담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해작을 드러냈다.

이 밖에 이지훈·조상웅·남경주·이상준·김영주·조정근·김동현·이예은 등이 출연한다. 공연은 11월 22일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한다. 문의 1577-3363

/박인영기자

2일 열린 뮤지컬 '위키드' 제작발표회에서 조상웅·김보경·정선아·옥주현·박혜나·이지훈(왼쪽부터)이 출연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설앤컴퍼니 제공

★보르코시건 시리즈★ 명예의 조각들 8화 글·그림 이거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김해숙 "내 머리속엔 유·아·인 세 글자"

최고의 남자 파트너 꼽아

배우 김해숙(사진 왼쪽)이 임달화와 원빈을 제치고 유아인(오른쪽)을 최고의 남성 파트너로 꼽았다.

김해숙은 2일 열린 영화 '깡철이' 제작보고회에서 모자지간으로 호흡을 맞춘 유아인에 대해 "굉장히 남자답다. 이제껏 보여주지 않았던 남성스러운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둑들'에서 멜로 연기를 함께 했던 홍콩 스타 임달화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누구죠? 제 머리 속에는 유아인 세 글자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유아인이 상대역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심봤다'를 외쳤다. 매체잡지에서 보고 드라마를 보며 팬이 됐다"며 "유아인을 굉장히 좋아해 언제 작업하나 싶었는데 이번 작품에 상대역이라고 들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생각. 복이 넝쿨째 들어왔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안권태 감독의 전작인 '우리 형'에서 원빈이 어머니로 출연하기도 했던 김해숙은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 같다. 나의 1번은 유아인이다. 원빈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해숙은 각종 병치레를 하며 동네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아들 강철(유아인)의 속을 썩이는 엄마 순이를 연기했다. '깡철이'는 다음달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트레일러 연출 맡은 조재현

배우 조재현(사진)이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트레일러를 연출했다.

영화제사무국은 2일 "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이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한 영화제'로의 초대'란 콘셉트로 트레일러를 직접 기획해 연출했다"고 밝혔다.

트레일러는 1분 안팎의 짧은 영상물로 영화제를 대표해 초청작 상영 전에 선보인다.

조재현이 연출에 참여한 건 가수 임재범의 뮤직비디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에 이어 두 번째다.

영화제는 다음달 17~23일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열린다.

/박전한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신랑 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받으세요!

주말 허니문 상담회

찾아 오시는 길

종각역

허니문 주말상담은 언제? 어디서?

일시 2013년 9월 7일(토요일)/2013년 9월 28일(토요일)

장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하나투어 본사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빌딩 2층)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고객님께 드리는 특전!

EVENT 01 주말 상담회 현장할인 최대 60만원!

할인제외 상품: 프리템, 연합상품, All-in상품, 허니문팩, 슬림상품 및 특수지역상품
(타히티 롱디브, 칸쿤, 모리셔스, 세이셸 등록, 풀빌라드)

※일부 상품은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EVENT 02 주말상담 현장 예약 특전!

1. 상담 고객님께 차 or 커피제공
2. 사전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 허니문 계약하시는 고객님께, 영화예매권 2매/필립스 전기포트를 생당 1개 증정해 드립니다

H Wedding

하나투어가 만든 웨딩컨설팅 브랜드 H웨딩!

웨딩& 허니문 One-Stop Service, 웨딩 패키지와 허니문을 한번에 준비하세요!

wedding.hanatour.com

허니문 상담팀 02)2127-1234

Star bag

임신 6개월 쌍둥이 엄마 된다

혼성 그룹 투투 출신의 쇼핑몰 사업가 황혜영이 엄마가 된다.

황혜영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이 측은 2일 "황혜영씨가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임신했다"며 "쌍둥이를 임신한 지 6개월째며 현재 태교에 전념 중"이라고 밝혔다.

황혜영은 2011년 10월 민주당 김경록 부대변인과 결혼해 화제가 됐다.

'권법' 촬영 지연 탓 출연 포기

배우 조인성이 제대 후 복귀작으로 선택했던 영화 '권법'에서 결국 하차했다.

2일 투자·배급사 CJ E&M 관계자에 따르면 '권법'의 촬영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조인성의 일정과 조율하기 어려워서 끝내 출연이 무산됐다. 이 영화는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SF물이다.

제작이 지연되면서 조인성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로 먼저 복귀했다.

새 음반 해외뮤지션 지원사격

월드스타 싸이가 유명 해외 뮤지션의 지원사격을 받아 새 음반을 제작한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일 지드래곤의 월드투어 '원 오브 어 카인드' 피날레 공연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싸이의 새 음반에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유명 뮤지션이 대거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결4' 새 커플 물망 올라

가수 정준영(왼쪽)과 배우 정유미(오른쪽)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 4' 새 커플로 물망에 올랐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제작진에게 가상부부 출연을 제의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정치·정인, 정진운·고준희 커플이 하차한 바 있다. 한편 나란히 물망에 오른 배우 윤진이의 출연은 불발됐다.

카라 멤버 지영 니콜 규리 승연 하라(왼쪽부터)가 2일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4집 '풀 블룸'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5인 5색의 매력을 선사했다

"깊어진 음악에 중성미 더했죠"

프렌치 팝+록 사운드 절묘한 조화
공감가는 시원한 가사에 톡 질걸요
한승연 "밥솥 2개 비워… 숙녀 못돼"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 카라(규리 하라 승연 니콜 지영)가 데뷔 7년째를 맞아 발표한 새 정규앨범에 만개한 음악성을 담았다. 2일 출시한 4집 '풀 블룸'은 멤버들의 아이디어로 가득 찼으며 1년여의 공백기를 보내는 동안 달라진 음악적 변화와 성숙을 엿볼 수 있는 앨범이다. 멤버들은 이날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 악물고 연습… 보컬도 변화

그동안 다양한 퍼포먼스와 포인트 안무, 귀여운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어왔던 카라는 이번 앨범에서 음악적 도전에 역점을 뒀다. 타이틀곡 '숙녀가 못 돼'는 프렌치 팝에 강렬한 록 사운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곡이다. '프리티걸' '허니' '미스터' 등 카라의 대표곡들을 써온 스윗튠(한재호·김승수·이창현)의 곡이지만 기존 카라 스타일에서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준다.

"첫 녹음에서 만족하지 못해 다시 요청해 녹음을 완전히 다시 하기도 했다"고 밝힌 한승연은 바뀐 곡 스타일에 맞춰 보컬에도 변화를 주는 등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지난달 21일 선공개한 '둘 중에 하나'도 카라가 처음으로 시도한 블루스 장르의 미디엄 템포 곡이다. 어쿠스틱한 반주 위로 이별을 앞둔 여자의 감정을 부드럽게 녹여냈다.

이외에 연인의 감정을 단단하게 들어낸 '1+1', 세련된 어반 팝 장르의 '팔로우 미', 펑키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두나잇' 등 9개 수록곡 모두 한층 깊어진 카라의 음악성을 느끼게 한다.

"오랜만의 앨범인 만큼 각오를 다지고 나왔어요. 처음 시도하는 장르를 소화하기 위해 노력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음악 실력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오랜 기간 준비해 발표한 앨범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남성풍 콘셉트 '매니시룩' 선봬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포인트 안무와 특별한 무대 콘셉트로 화제를 모아온 이들은 이번 앨범에서 '매니시 룩'을 전면에 내세운다.

"지영이가 성인이 돼 좀 더 섹시하게 가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색다른 모습을 찾아보다가 남성풍의 콘셉트에 도전하게 됐어요. '숙녀가 못 돼'라는 노래와도 잘 어울리고요."

멤버들은 '강남스타일' '젠틀맨' 등을 연출한 조수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뮤직비디오에서 슈트와 넥타이 등의 소재를 사용해 중성적인 느낌의 섹시한 매력을 뽐어낸다.

강지영과 한승연은 노래 제목과 같이 숙녀답지 않은 내면을 깜짝 공개했다. 강지영은 "운동을 할 때는 창피해서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못 보게 한다.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 온갖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라며 괴성을 지어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승연은 "숙녀라고 하면 조신하고 차분해야 하는데 나는 배가 고프면 그러지 못한다. 허겁지겁 먹어대고 특히 화가 나면 잘 먹는다. 밥솥을 2개나 비워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가사에 크게 공감했다는 박규리는 "'가다 확 넘어져라'라고 커플에게 짜증 내는 부분이 있는데 속이 시원했다. 평소에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가사를 통해 풀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미니 팬미팅 형식의 쇼케이스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뮤직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이달 중순 MTV를 통해 싱가포르·홍콩·중국·일본 등에 방영된다.

/유순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디자인/[illegible] 사진/[illegible] 제공

정규 2집 타이틀곡이 무려 4곡 '이색' ― 앨범 공개시기도 온·오프라인 달리

GD 음반 '파격의 연속'

빅뱅의 지드래곤이 파격적인 음반 마케팅과 함께 4년 만의 정규앨범을 공개했다.

지드래곤은 2일 오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공식 블로그에 정규 2집 트랙리스트와 출시 일정을 발표하고 컴백을 알렸다. 총 14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에서 4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우는 이색 전략을 펼친다.

또 앨범을 두 시기로 나눠 온라인에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오프라인에 출시하는 계획도 세웠다. 더블 타이틀곡인 '블랙'과 '니가 뭔데'를 포함한 1~5번 트랙을 2일 공개했다. 5일에는 또 다른 타이틀곡인 '삐딱하게'와 '늴리리야'를 포함한 6~12번 트랙 총 7곡을 공개한다. 13일에는 '원도우'와 '블랙'의 다른 버전을 추가한 총 14곡이 수록된 정규 음반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파트1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힙합계의 대모라 불리는 미시 엘리엇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늴리리야'를 비롯해 디플로와 유튜브를 강타한 '할렘셰이크'의 바우어가 참여한 '쿠데타'가 수록됐다.

파트2에는 독일의 유명 DJ인 보이즈노이즈가 참여한 '너무 좋아'가 수록되며, 음반에는 타이틀곡 '블랙'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스카이 페레이라가 피처링한 버전이 실린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발표한 미니앨범 '원 오브 어 카인드'에서 세련된 힙합 비트와 독특한 가사를 선보인 바 있어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인다. 1일 첫 솔로 월드투어 마지막 공연을 마친 그는 본격적으로 2집 활동에 들어간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손석희 14년만에 앵커 복귀

JTBC 메인뉴스 단독진행

손석희(사진) JTBC 보도담당 사장이 메인 뉴스의 앵커로 나선다.

JTBC는 2일 "16일부터 대대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한다"면서 "손 사장이 '뉴스9'의 단독 진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손 사장이 뉴스 앵커로 나선 건 1999년 MBC '아침뉴스 2000' 이후 14년 만이다.

그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리포트의 백화점식 나열을 자제하고 당사자나 전문가와의 인터뷰, 심층 취재 등을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오병상 JTBC 보도국장은 손 사장이 직접 앵커로 나선데 대해 "효율적인 뉴스 프로그램 개편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뉴스에는 과거 MBC 표준FM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0여 년간 함께 일했던 작가들이 합류하는 등 손 사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

/박진현기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Musical

BONNIE & CLYDE

보니앤클라이드

9월 3일 오후 2시 2차 티켓 오픈!

2013.9.4~10.27 충무아트홀 대극장

이정열 김법래 김민종 엄기준 한지상 Key 박형식 주아 안유진 리사 다나 김형균 박진우 김민수 외

bonnieandclyde.interest.me

강강술래 추석선물세트 인기

작년보다 매출 40% 늘어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최대 35% 할인 판매 중인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10만원 미만 실속 세트의 인기가 가장 높다고 2일 밝혔다. 불황에다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우 등 축산 선물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회사 측은 풀이했다.

강강술래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지점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5팩 15인분)는 3만9100원, 소용량 세트(350㎖ 6팩 10인분)는 2만2900원, 갈비맛쇠고기육포 세트(6봉)는 2만5900원에 판매한다. HACCP 인증 시설에서 방부제·색소 조미료 등을 넣지 않은 제품이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참칠한우떡갈비세트'(3박스)는 4만7500원,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는 3만700원에 판매한다.

한편 백세시대와 강강술래는 국가대표 양궁팀과 체조팀 리듬체조팀, 삼두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백두산 생오미자 를 증정하는 행사를 갖고, 9월 한 달간 쇼핑몰에서 오미자 2세트를 사면 1세트를 덤으로 증정한다.

주는건 과일 … 받는 건 상품권

올 추석 희망선물 임장자 관련 지출 평균 19만원대

올 추석 주고 싶은 선물은 비교적 저렴한 '과일', 받고 싶은 선물은 실용적인 '상품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긴 불황으로 서민 10명 중 1명은 추석 선물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가 고객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주고 싶은 선물 1위로는 올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과일(20.1%)이 꼽혔고, 다음으로 건강식품(16.2%), 식용유 통조림(15.7%), 보디용품(8.7%), 한우·갈비(6.6%) 순이었다.

반면 받고 싶은 선물로는 상품권(45.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 한우 갈비(11.2%), 과일(8.5%), 건강식품(6.3%), 식용유·통조림(5.5%)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11.6%인 142명은 '추석 선물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설 때(3.6%)보다 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선물 구입을 포기한 이유로는 '현금·이용 등으로 대체한다'가 41.5%로 가장 많았고, '경기 악화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도 32.4%에 달했다.

추석 선물 관련 평균 지출 금액은 19만6651원으로 지난해 21만2309원보다 1만5000원가량 줄었다.

허준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불황의 여파로 올 추석에는 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일을, 받을 때는 실용적인 상품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다섯명 모이면 소한마리 먹기 쉽네

가정 소비 위해 도축할 경우 부대 비용 최대 38만원 지원

앞으로 일반 소비자 5명 이상이 모이면 비싼 한우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게 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한우협회와 공동으로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 대상을 12월 20일까지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가는 물론 일반 소비자 최소 5명이 가정 소비를 목적으로 소 한 마리를 도축할 경우 도축 및 가공·배송에 따른 부대 비용으로 최대 38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마릿수는 모두 1만2000마리이며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전국 지역 축협과 한우협회 도지회(시·군지부)로 하면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정훈 홍보마케팅팀장은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은 새로운 소비를 유도해 농가에도 사육 마릿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원기자

고주파 내시경 디스크 시술 '10분의 힘'

강남초이스병원이 추천하는 '디스크 비수술 치료'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하던 가수 휘성은 지난해 급성 제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후 군복무를 강행한 결과 통증이 재발했고 제대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주치의인 강남 초이스 병원 조성태 병원장은 제4요추와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 및 재발로 진단하고 국소마취하에 10여 분간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을 시행했다.

◆수술이 두렵거나 심인성 노인 등 환자도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최근 이와 같은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보다 진화된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척추협착증까지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는 수술이 두렵거나 고혈압·당뇨 골다공증 환자, 노인 등 적극적인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국소마취 후 1.5mm 굵기의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어 직접 환부를 들여다보며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레이저를 쏴 염증을 제거하는 동시에 신경근 유착을 제거하고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다. 내시경으로 작은 병변까지 제거할 수 있고 약물을 집어넣어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수술이 힘든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강남 초이스 병원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환자 맞춤형 진료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

강남 초이스 병원은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시술 외에도 근본적인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질환 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등 4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환자를 전담하는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특히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도수 감압 운동 치료를 시행한다. 도수 치료는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척추뼈를 바로잡고 눌린 신경을 풀어줘 압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통증을 덜어주는 치료다.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감압 치료는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손상되거나 퇴행된 디스크를 정상 디스크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 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킨다.

조성태 병원장은 "대부분의 디스크 질환은 정확히 진단한 뒤 첨단 치료를 이어가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 초이스 병원은 서울대입구역에 본원이 있고 홍대입구역에 전문 치료 클리닉 및 척추 관절 비수술 치료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가을 할배들 세가지 복병 피해야 '건강 V'

감기·대상포진·고혈압 등 일교차 큰 환절기 조심해야

아침저녁으로 갑작스레 서늘해진 바람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는 환절기에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은 감기와 대상포진이다. 감기는 대개 1주일 이내에 증세가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면 천식이나 심부전 등 다른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몸에 수포와 함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수포가 발견된다면 우선 대상포진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대상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포가 증가하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한다.

감기와 대상포진 모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상포진은 방치할 경우 2차 감염이나 뇌수막염, 간염 등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감기의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찾는 것이 좋고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라면 미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아침저녁 쌀쌀함은 심장에 무리를 줘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수축기 혈압은 1.3mmHg 올라간다. 기온이 5도만 내려가도 혈압은 약 6.5mmHg나 올라가는 것이다.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면 좁아진 혈관이 쉽게 터지거나 혈관벽이 손상돼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 또 고혈압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동맥경화증, 뇌졸중, 신부전증 등 치명적이고도 치료가 어려운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노인 혈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혈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55세 이상에서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약을 처방받아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향림 서울시 북부병원 내과 과장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부천성모병원 6일 '난청 치료' 주제 건강강좌

●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이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난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6일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옴니버스홀에서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비인후과 서재현 교수와 류일상 청각사가 ▲노화성 난청 ▲음향기기에 의한 소음성 난청과 예방법 ▲나에게 맞는 보청기 찾는 요령 등을 설명한다. 무료 청력검사, 신형 보청기 체험, 보청기 무료 점검 서비스 등도 진행된다.

아주대병원 7일 '제1회 당뇨발·창상 심포지엄'

● 아주대병원이 7일 '제1회 아주 당뇨발 및 창상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늘어나는 당뇨병 환자 관리와 '당뇨발'이라 불리는 당뇨병 합병증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대병원 당뇨발클리닉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내 전문 의료인들이 당뇨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대병원 '건강한 위·대장 축제'

내일 환우 의료진 공동 행사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위암 대장암협진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아 환우들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4일 진행한다.

이대목동병원 3층 이화쉼터에서 열리는 '오색 야채 건강 비빔밥 만들기'를 시작으로 아나바다 장터, 자가 공예품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또 '위·대장 건강관리'를 주제로 심기남 정성애 소화기내과 교수의 건강 강좌와 레크리에이션 행사도 열리며 오후 4시에는 이대목동병원 위암 환우회인 '위너스'의 발족식이 개최된다.

김광호 위·대장센터/위암 대장암협진센터장은 "이번 행사에 환자와 지역 주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알찬 건강 정보도 얻고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대 의료진들이 펴낸 '여자 40세부터 건강하게, 잘먹고 잘사는 법' 등의 건강 도서와 다양한 기념품, 추첨을 통한 내시경 검진권 등의 경품이 주어진다. /황재용기자

추신수 "아! 사이클링히트"

콜로라도전 5타수 3안타…18호 홈런·17호 도루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시즌 18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3년 만에 20-20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투런 홈런 포함 5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전날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이틀 연속 3안타를 때리는 물오른 타격감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개인 통산 100번째 홈런을 친 이후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고 시즌 타율은 0.281에서 0.284로 올랐다.

그는 이날 17호 도루도 성공해 2010년 이후 3년 만의 20홈런-20도루 달성에 각각 홈런 2개, 도루 3개만을 남겨뒀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곧바로 2루를 훔쳤다. 3회 무사 1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포를 날렸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때려냈다.

3루타만 추가하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는 상황이었지만 6회와 8회에는 각각 3루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물러났다. 신시내티는 콜로라도에 4-7로 졌다.

한편 1997년부터 콜로라도에서만 뛴 베테랑 타자 토드 헬턴은 7회말 때린 2루타로 개인 통산 2500안타 고지를 밟았다.

/정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추신수가 2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1회 안타로 출루한 뒤 2루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메시 "봤지 해트트릭" 바르셀로나의 메시(오른쪽)가 발렌시아 골키퍼 디에고 알베스를 제치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AP 뉴시스

염경엽 감독 '위기극복의 리더십'

이정호의 베이스볼 카페

염경엽 넥센 히어로즈 감독은 7월을 앞두고 많이 괴로웠다.

개막 초반 스피드 야구와 탄탄한 팀워크로 선두권을 달렸다. 3연패를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팀이었다. 그러나 야구는 투수가 없으면 무너진다. 브랜든 나이트·앤디 밴 헤켄 등 선발투수들이 부진에 빠지며 마운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승승장구하던 초보 감독에게도 위기가 왔다. 6월은 9연패 포함 8승1무13패. 고민을 하다 보니 하루에 두 시간도 자지 못했다. 체중은 57kg까지 떨어졌다. 야구를 한 이후 가장 적은 체중이라고 한다. 지난겨울 선수들의 땀내 나는 땀을 기억하는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을 찾아갔다.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감독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 한 달 뒤를 준비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머리 좋은 염 감독은 곧바로 의미를 알았다. 벌어놓은 승수가 있으니 선발투수들을 한 달 동안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두 명의 선발투수들을 준비했다. 문성현과 오재영이었다. 문성현은 4월 중순 이후 1군에 없었다.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선발투수로 나서 6경기에서 5승을 따냈다. 오재영은 2경기에서 1승 9⅓이닝 3자책점을 기록했다.

넥센은 8월을 버텨냈다. 9월 1일까지 12승11패1무로 버텼다. 두 투수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것이다.

넥센은 롯데 자이언츠에 3.5경기 차로 앞서있다. 남은 경기에서 반타작만 하면 4강이 확실시된다. 한 달의 준비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 힘을 키워냈고 위기의 넥센을 구한 것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시속 152km 광속구로 떠오른 왼손 샛별 임지섭

제26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야구의 왼손 투수 계보를 이을 샛별 임지섭(18·제주고)이 탄생했다.

임지섭은 1일 대만 타이중시 인터컨티넨탈구장에서 열린 쿠바와의 B조 조별리그 1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16개나 솎아내는 위력적인 투구를 뽐냈다. 하지만 2피안타 5볼넷 2실점을 기록하며 한국이 1-2로 져 패해 임지섭은 패전투수가 됐다. 125개의 공을 던진 임지섭은 140km대 후반의 공을 잇달아 뿌렸고, 최고구속으로 시속 152km를 기록했다.

R마드리드 이적 베일 '1억 유로의 사나이'

웨일스 출신 축구 이적 시장 최대어인 가레스 베일(24·사진)이 역대 최고 이적료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6년 계약으로 베일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8600만 파운드(약 1477억원)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00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당시의 8000만 파운드(약 1400억원)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또 최초로 1억 유로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를 모은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같은 거액을 쏟아부은 결과 호날두-우베일의 막강 공격라인을 완성했다.

남미 콤비 안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이상 바르셀로나)는 1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열린 발렌시아와의 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환상 호흡을 맞추며 3-2 승리를 이끌었다. 허벅지 부상을 털고 돌아온 메시는 시즌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 올 시즌 3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정순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Can you give me directions to the Peace Park? 생활 정보 묻고 답하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Excuse me. 피스 파크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B. Of course. 그곳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A. Oh, really?
B. Don't worry. It's easy. 이 길로 두 블록 간 다음, 오른쪽으로 도세요.
A. Is it on that side of the street?
B. No, the Park is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정답 Can you give me directions to the Peace Park? / It's not very far from here. / Go 2 blocks on this street then turn righ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생생영어팁

▶ You want to make a left at the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세요.

이 말은 길을 가르쳐 주는 문장입니다. 직역해보면 '당신은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돌고 싶어한다'가 되어 어색하게 들리지만 want to가 여기서는 '~하셔야 합니다'라는 부드럽게 지시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냥 Make a left(= Turn left / Make a left turn)라고 하는 것보다는 You want to로 시작하면 훨씬 부드럽게 들리니 이 표현을 알아두면 유용할 거예요.

ex. A: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B: Do you see the grey building over there? You want to make a right at that building, then to walk straight for about a block.

대명사 1

▶ 인칭대명사의 분류

	주격	소유격	목적격
1인칭	I 나는 we 우리는	my 나의 our 우리의	me 나를 us 우리를
2인칭	you 너는 you 너희들은	your 너의 your 너희들의	you 너를 you 너희들을
3인칭	he/she/it 그/그녀/그것은 they 그들은	his/her/its 그/그녀/그것의 their 그들의	him/her/it 그/그녀/그것을 them 그들을

▶ 예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이에요.
2. This is his house. 이것이 그의 집이에요.
3. Owen knows them. 오웬은 그들을 알아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East Abbey City is run ______ a mayor and a seven-member council who are elected for four years.
(A) of (B) among
(C) by (D) from

02 ______ about the actual cost of the project have delayed the plans for expanding the arena.
(A) Additions (B) Manners
(C) Materials (D) Concerns

01. [illegible]
해설 [illegible] (C) by를 써야 한다.
어휘 run 동 운영하다 [illegible] mayer 명 시장 council 명 [illegible] elect 동 선출하다
정답 (C) by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D) Concerns를 쓴다.
어휘 actual 형 실제적인, 사실상의 delay 동 지연시키다 expand 동 확장하다 arena 명 경기장 addition 명 추가
정답 (D) Concerns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 하기

1.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실내

This is a picture of a(n) 이것은 ~의 사진입니다	airport 공항 meeting room 회의실 hair salon 미용실	laboratory 실험실 warehouse 창고 cafeteria 구내식당

야외

This is a picture of a(n) 이것은 ~의 사진입니다	bench 벤치 outdoor market 야외시장 pier / dock 부두	lake 호수 street 거리 park 공원

2.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

A man 남자가	has gray hair 흰머리이다 has a mustache 콧수염이 있다	has long hair 머리가 길다 has a beard 턱수염이 있다
A woman 여자가	has blond hair 금발 머리이다 has pigtails 땋은 머리이다	has curly hair 곱슬머리이다 has a ponytail 머리를 묶은 머리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2011-서울강남-0163]
1566-7979
#1
#2
#3
빌린만큼
택시도
#5
조금 비싸지만 편한거 좋은 서
#6
중요하네
우리 곁에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역시! Rush & Cash
1566-7979